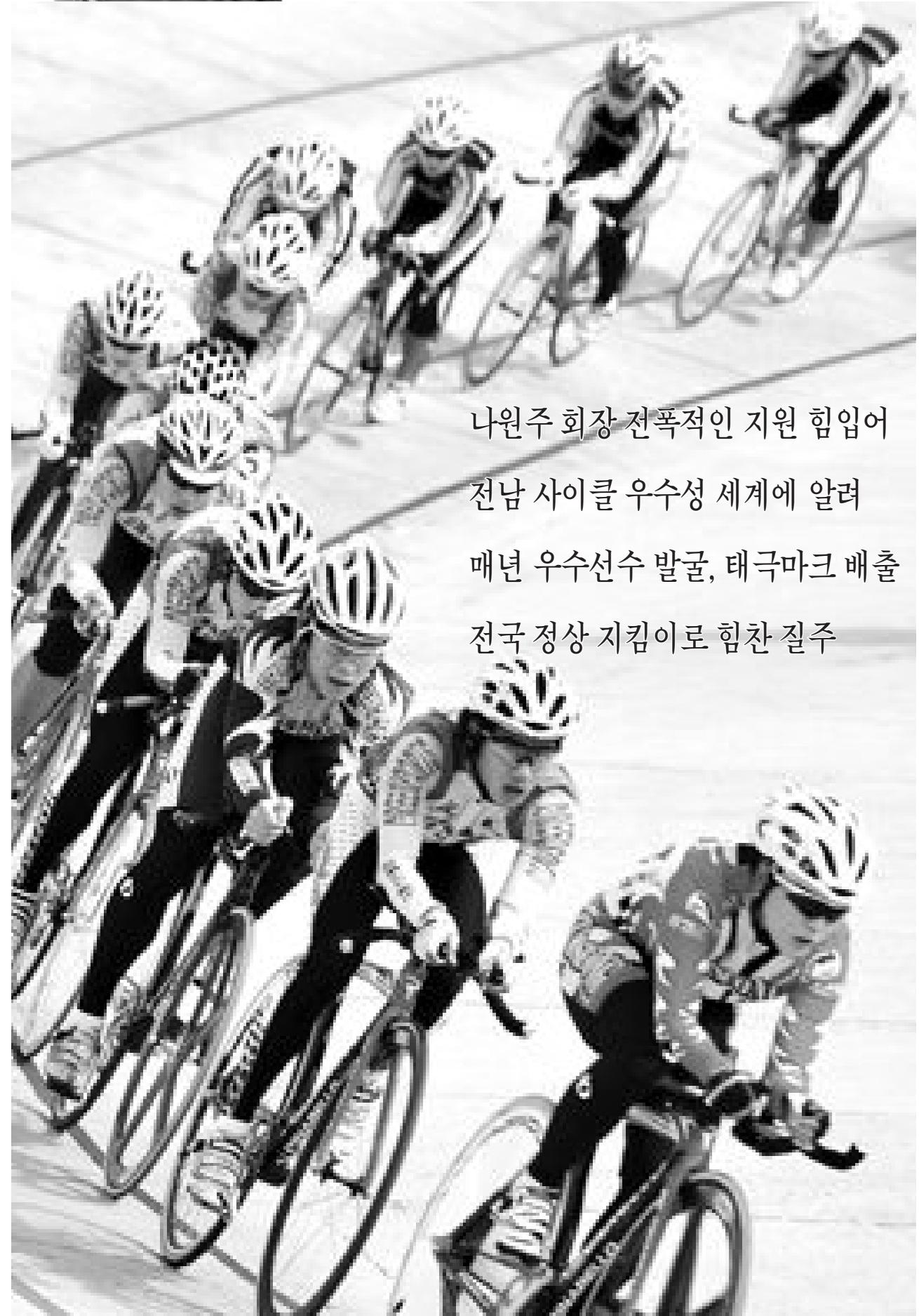




“밟고 달려라…” 하루도 거르지 않는 조련

스포츠 포커스

우승 제조기 양재환 전남사이클연맹 전무이사



나원주 회장 전폭적인 지원 힘입어
전남 사이클 우수성 세계에 알려
매년 우수선수 발굴, 태극마크 배출
전국 정상 지킴이로 힘찬 질주

지난 2005년 3위, 2006년 2위, 그리고 2007년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1위.

전국 최정상에 우뚝 선 전남사이클 선수단은 제88회 전국체전에서 금9개, 은3개, 동2개를 따내며 종합득점 2천268점을 획득해 지난 2004년 종합우승을 이룬 뒤 3년만에 정상에 다시 섰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이클에 미친 사나이’로 불리는 양재환(50)나주시청 사이클부 감독겸 전남사이클 연맹 전무이사의 헌신적인 지도가 있었다.

여고·남고부 나주미용고와 금성고, 여자 일반 나주시청과 남자 일반 강진군청으로 이뤄진 전남사이클 선수단은 전남사이클협회 회장인 나원주(61) 화인코리아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양재환 전무이사, 조장수 금성고 코치, 장선희 미용고 코치, 박경준 강진군청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이 이루어진데다 나주에 사이클 전용경기장인 벨로드롬을 갖추고 있어 전국정상에 설 수 있었다.

나주시청은 지난 94년도 창단, 양재환 감독이 부임하면서 전국 최정상에 군림하고 있으며 미용고도 지난 88년 창단돼 전국 3~4권 전력을 유지하다 2003년부터 전국 최정상에 우뚝 섰다. 금성고와 강진군청도 매년 우수선수를 배출하며 전남 사이클이 전국 최정상

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남사이클이 전국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까지는 양재환 전무이사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양재환은 지난 2000년 제20회 아시아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2003, 2004, 2006년까지 총 4차례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주니어 사이클선수권대회 총감독을 역임했다.

특히 2006년 제26회 아시아사이클선수권 대회에서 금8개, 은3개, 동3개를 획득, 종합 우승을 했고, 카타르도하아시안게임에서 금5개, 은2개, 동2개를 획득, 종합2위의 성과를 거두는 등 국내 최고의 지도자로서 전남사이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광주 송일고 재학시절 사이클에 입문했던 양재환은 지난 1976년 고교 졸업 후 도대표 선수와 아시아자동차 선수로 활약했다. 누구에게도 뛰어나지 않는 실력이었지만 태극마크를 달지는 못한 것이 항상 마음 한켠에 아쉬움으로 남았다.

선수로서 한계를 느낀 양감독은 지도자로서 우수한 선수들을 키워 태극마크를 달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단순히 현장에서의 이론으로만 지도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인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 고교졸업 후 13년이 지난 1989년 늦깎이 대학생이 됐고, 내친김에 동신대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준비하는 이에게는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양감독은 지난 1994년 나주시청 사이클 창단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그동안 준비해온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박하정, 안연희, 이선영, 류진아(현 국가대표), 김수현 등 5명의 국가 대표를 배출해 ‘국가대표 제조기’라는 애칭을 얻으며 자신이 달지 못한 태극마크에 대한 한을 풀었다.

양감독은 “선수로서 후회없이 자전거를 탔지만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또 국가대표 감독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이러한 회한은 다 사라졌다”고 웃었다.

양감독이 이렇게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습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철칙과 ‘감독은 항상 현장에서 살아야 한다’는 지도자 철학을 선수들과 공유했기 때문이다.

양재환 전무는 “지난 2004년 정상에 오른 후 너무 쉽게 자리를 내줬지만 현재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기 때문에 2008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대회 2연패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 전무는 또한 “지난 2005년 나원주 회장코리아 대표가 전남사이클협회 회장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전남 사이클이 발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최정상의 자리에 선 양재환 전무이사의 전국체전 2연패를 향한 질주가 시작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왼쪽 아래부터 박지은, 임지은, 최은진, 김진희, 이수진, 홍현지 선수. 윗줄 왼쪽부터 양재환 전무, 강은미, 나희경, 강덕조, 정인경, 강이람, 나아름 선수, 장선희 코치, 나원주 회장.

/위저링기자 jnwi@kwangju.co.kr

작은만남 큰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급사고는—
본사 판매국(062)220-0551

절 라 도

치평동 한국은행사거리 삼무역자금
생고, 꽃살, 길바살, 인창살, 유희수육
생고비빔밥, 냉면, 떡국 단체예약수님행
☎(062)373-7500

낙 지 소 통

치평동 시청앞 현대@맞은편역자금점
신나지 요리전문
대표 김 용 환
☎(062)374-3800

HERBALIFE(허벌라이프)

쌍용동 엣동나무길과 내봉동주공아일구아이
체증비만관리 심혈관 피부관리회원수시모집
대표 윤 석 한
☎(010)4614-7813

통 빠 감자탕진 월점

진월동 빅시티옆
김자탕전문점 24시간영업, 대형주차장
150석대·소·현대석원비·어린이 놀이방비
☎(062)675-1221

우리은행금호지점

금호동 서구문화센터건너
친절한 은행
지점장 안 창 용
☎(062)681-0943

(주)에일리프팅케어서비스광주 전남지사

운암동 운암2동사무소맞은편3층
장애인체육시설로마마는길을통해
회원및 직원수시모집
☎(062)531-2555

제 일 꽃 유 름

복구 우산동 441번지
화환, 부케, 꽃바구니, 관엽 난전문
대표 심 양 길
☎(062)511-9196

비파생기름·좌훈

운암동 통운고기아래 운암시장입구2층
담노컴, 디아트, 기미, 부인병, 미백, 광, 향, 임
관절염, 면역체계강화 인체독소제거
☎(062)514-1011

꼬 꼬 릉 닭

광산구 운남동 주공4단지상가
배달전문양념후라이드브런치킨
쿠폰장→양념후라이드중 한 미리서비스
☎(062)853-9282

현대 웨빙식당

복구 각화동 무등파크센트럴점
생고기 전문점
대표 백 선 만
☎(062)268-8178

인 성 상 사

일곡동 일곡마을내
인성유학이스플트 광주·전남부대리점
대표 장 종 식
☎(062)571-2326

한국옥외광고협회북구지회

복구 중흥동 무등장례예식장옆
복구 관내 내·외 광고물부착및제작
회원수시모집
☎(062)521-7700

서 원 정

서구 풍암동 풍암고등학교정문앞
글비 정식전문
☎(062)682-6253

국토환경시스템

동구 산수동 계림나무전거리
인력공급·위생관리·용역사업·업소청소
입주 거주청소, 건물준공 청소
☎(062)227-5557

맥 주 세 상

회점동 염주시거리 먹자골목
레스토호프 대형홀운영
대표 최 승 호
☎(062)371-2990

향 미 집

신정동 하남주공점분점 및 편 먹자골목
장아구이, 행모리, 생대된, 일랑, 낙지볶음전문
대표 정 영 애
☎(062)962-4208

후 원

광산구 운남동 운남고교앞
오리요리 전문점
유형2동 고기외회, 오리要害, 오리사발, 오리죽
☎(062)955-5550

상 무 보 양 탕

상촌동 구)상무시장 맞은편
수육, 전골, 디리보통탕, 후이탕, 토끼탕점
단체예약수님환영
☎(062)371-7007

푸른건강원

풍향동 광주교대편 이미트 맞은편
양파찌배찌, 포도즙, 흑연소스, 기수주, 봉아찌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512-2752

문화평생교육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앞 현대빌딩 B동4층
에쁜 파스텔회 수강생모집
월프로그램 교육서비스 학원 평소파티대행센터
☎(062)531-3115

비 바 생 삼 겁

상촌동 삼무2동사무소앞
주방설거지, 출세방 수시모집
단체예약수님환영
☎(062)385-9293

e-쁘자오문총점

문암동 리안1차상가 국민은행2층
여성전용 샵프리미엄 티켓 전문점
단체예약수님환영
☎(062)264-8822

한국 자동차외형복원

양산동 양산저수지옆 근로도변
글리스코팅, 광택, 흡집복원 등 30% 할인
☎(062)365-7080

진 가 네

증평동 280-33번지
생삼겹, 삼겹살, 원장찌개, 한식전문
대표 진 미 숙
☎(062)524-5454

CNS 퀴트니스클럽
월계동 891-5번지 LCE 워커힐
실내골프장, 헬스클럽, 스크리골프
에어로빅, 요가 회원수시모집
☎(062)973-3339